# Credit Weekly

## 관세 우려와 분기말 경계감 크레딧 약보합

Analyst 이화진 hlee@hmsec.com

**회사채 수요예측 호조세 지속**

- 포스코인터내셔널(AA-)은 2년/3년/5년 총 2천억원 발행에 7배~8배 수요가 모집되면서 총 3천억원으로 증액 발행을 결정함. 낙찰 금리는 각각 -5bp/-10bp/-15bp로 결정됨. 동사는 미얀마 가스전이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고, LNG터미널, 민자발전 사업 등 사업포트폴리오가 다각화 되어 있음. 8월 28일 신용등급 전망이 AA-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됨. 단기간 내 원전 신규 건설이 어려운 점, AI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태양광, 풍력만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LNG 발전 전망은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됨
- 우리금융에프앤아이(A0)는 1.5년/2년/3년 1,500억원 발행에 7배~11배 수요가 응찰했고, 3천억원으로 증액 발행함. 낙찰 금리도 각각 -20bp/-33bp/-50bp로 결정됨. 대한전선(A0)은 2년/3년 800억원 발행에 11~12배 수요가 모집 되면서 각각 600억원/950억원으로 증액을 결정함. 낙찰 금리는 각각 -35bp/-55bp임. 롯데쇼핑(AA-)은 2년/3년 1,500억원 발행에 각각 10배/5배 가까운 수요가 모집되었고, 낙찰금리도 -9bp/-5bp로 결정됨. 그룹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크레딧 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보임

**주목받는 사모신용(Private Credit), 관세 협상 지연과 분기말 경계감으로 크레딧 약보합**

- 최근 사모신용(Private Credit)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듯함. 무디스와 KIS는 관련 자료와 세미나를 통해 사모신용시장 성장에 주목함. 글로벌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은 지난 20년간 글로벌 마켓에서 10배 성장했고, PE(Private Equity) 시장은 4배 정도 성장함. 사모신용 시장은 2조 달러 규모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더 큰 규모로 볼 수 있음.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 출시를 촉진하고 있음
- 미국에서 사모신용의 성장 배경 중 하나는 은행 수가 감소하고,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줄인 영향을 꼽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은 사모신용 시장을 통한 조달을 하게 됨.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조달에 활용하고 있음. 프라이빗 에퀴티(Private Equity) 대비 수익의 안정적 수익을 냄
- 사모 신용 중 한 형태는 LP(Limited Partner)의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직접 기업에 대출함. 채권에 비해 발행이 빠르고, 정보 공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각국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는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 대출 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음
- 미국의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 요구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FOMC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채권 시장은 강보합세를 나타냄. 크레딧은 관세 우려와 캐리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기말 경계감으로 차주에는 약보합세를 예상함

〈표 1〉 주간 금리 및 스프레드 변동 (9/16일 기준)

| 구분 | 금리(%) | | | | | 크레딧 스프레드(bp) | | | | | 전주 대비 스프레드 변동(bp) | | | | | 전월 대비 스프레드 변동(bp) | | | | |
|---|---|---|---|---|---|---|---|---|---|---|---|---|---|---|---|---|---|---|---|---|
| | 1Y | 3Y | 5Y | 7Y | 10Y | 1Y | 3Y | 5Y | 7Y | 10Y | 1Y | 3Y | 5Y | 7Y | 10Y | 1Y | 3Y | 5Y | 7Y | 10Y |
| 국고채 | 2.27 | 2.41 | 2.56 | 2.70 | 2.80 | - | - | - | - | - | -1.2 | -1 | -2.5 | -3.2 | -3 | 0.9 | -3.0 | -5.0 | -6.4 | -6.0 |
| 특수채 AAA | 2.47 | 2.61 | 2.74 | 2.82 | 2.99 | 20.7 | 19.3 | 17.7 | 11.2 | 18.9 | 1.9 | 0.7 | 2.5 | 0.2 | 0.0 | 3.6 | 1.1 | 3.7 | 0.6 | -0.2 |
| 은행채 AAA | 2.54 | 2.62 | 2.83 | 2.91 | 3.28 | 26.9 | 21.1 | 27.2 | 20.2 | 48.6 | 1.2 | 0.0 | 2.2 | 0.4 | -0.4 | 2.3 | -0.4 | 2.3 | 0.5 | -0.4 |
| 여전채 AA+ | 2.59 | 2.75 | 2.95 | 3.30 | 4.18 | 32.4 | 33.3 | 38.9 | 59.9 | 138.3 | 1.1 | -1.0 | 1.6 | 0.3 | 0.1 | 1.8 | -3.3 | 1.0 | -0.3 | 0.1 |
| 여전채 AA- | 2.66 | 2.87 | 3.24 | 3.73 | 4.58 | 39.5 | 45.8 | 67.8 | 103.0 | 178.0 | 1.2 | -0.9 | 1.5 | 0.3 | 0.1 | 1.8 | -3.4 | 0.6 | 0.1 | 0.0 |
| 여전채 A+ | 3.10 | 3.71 | 4.38 | 4.62 | 5.27 | 83.8 | 129.4 | 181.8 | 192.1 | 247.5 | -0.3 | -1.0 | 1.5 | 0.3 | 0.0 | -2.4 | -3.6 | 0.5 | 0.0 | -0.3 |
| 회사채 AAA | 2.54 | 2.72 | 2.90 | 2.96 | 3.34 | 27.2 | 31.1 | 34.2 | 25.4 | 54.3 | 0.5 | -0.4 | 1.7 | 0.2 | -0.6 | 2.4 | -1.4 | 0.7 | 0.0 | -1.9 |
| 회사채 AA+ | 2.57 | 2.78 | 2.97 | 3.06 | 3.63 | 30.3 | 36.7 | 40.8 | 36.1 | 83.3 | 0.3 | -0.2 | 1.6 | 0.1 | -0.8 | 1.8 | -2.5 | 0.3 | 0.0 | -1.7 |
| 회사채 AA0 | 2.60 | 2.81 | 3.04 | 3.16 | 3.97 | 33.1 | 39.8 | 47.5 | 45.9 | 117.3 | 0.3 | -0.3 | 1.6 | 0.1 | -0.8 | 1.8 | -2.5 | 0.3 | -0.1 | -1.7 |
| 회사채 AA- | 2.63 | 2.87 | 3.14 | 3.36 | 4.33 | 36.6 | 45.3 | 57.9 | 65.6 | 153.2 | 0.3 | -0.1 | 1.5 | 0.1 | -0.8 | 1.8 | -2.3 | 0.3 | -0.1 | -1.7 |
| 회사채 A+ | 2.80 | 3.27 | 3.85 | 4.08 | 4.91 | 53.2 | 86.1 | 128.8 | 137.4 | 210.8 | 0.0 | -0.6 | 1.7 | 0.2 | -0.8 | 0.8 | -2.3 | 0.4 | -0.4 | -1.7 |
| 회사채 A0 | 2.96 | 3.54 | 4.29 | 4.53 | 5.37 | 68.9 | 113.2 | 172.9 | 182.6 | 257.0 | 0.0 | -0.6 | 1.7 | 0.2 | -0.8 | 0.8 | -2.1 | 0.8 | -0.1 | -1.7 |
| 회사채 A- | 3.22 | 4.00 | 4.88 | 5.05 | 5.88 | 95.7 | 159.0 | 231.6 | 235.1 | 308.1 | 0.1 | -0.6 | 1.7 | 0.2 | -0.8 | 0.7 | -1.7 | 0.9 | -0.1 | -1.7 |
| 회사채 BBB+ | 4.32 | 6.30 | 6.77 | 6.85 | 7.37 | 205.4 | 388.6 | 420.7 | 414.9 | 457.1 | -0.1 | -0.5 | 1.7 | 0.2 | -0.6 | 0.2 | -1.6 | 1.1 | -0.1 | -1.3 |

주: 민평3사 기준, 전월대비 스프레드 변동 중 국고채는 금리 변동.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표 2〉 수요예측 (9/4-9/16)

| 발행종목 | 수요 예측일 | 발행일 | 신용 등급 | 예측 금액 (억원) | 발행 금액 (억원) | 만기 (년) | 금리밴드(bp,%) | | | 낙찰 (bp,%) | 유효 수요 (억원) | 유효 경쟁률 (배) | 발행목적 | 개별민평 (%) |
|---|---|---|---|---|---|---|---|---|---|---|---|---|---|---|
| | | | | | | | 기준 | 하단 | 상단 | | | | | |
| 포스코인터내셔널 | 2025-09-04 | 2025-09-12 | AA- | 500 | 1,000 | 2.0 | 개별민평 | -30 | 30 | -5 | 3,200 | 6.40 | 차환자금 | 2.72% |
| 포스코인터내셔널 | 2025-09-04 | 2025-09-12 | AA- | 1,000 | 1,000 | 3.0 | 개별민평 | -30 | 30 | -10 | 7,800 | 7.80 | 차환자금 | 2.79% |
| 포스코인터내셔널 | 2025-09-04 | 2025-09-12 | AA- | 500 | 1,000 | 5.0 | 개별민평 | -30 | 30 | -15 | 4,000 | 8.00 | 차환자금 | 3.05% |
| 케이카캐피탈 | 2025-09-08 | 2025-09-15 | BBB0 | 200 | 260 | 1.5 | 절대금리 | 4.40% | 5.00% | 4.40% | 290 | 1.45 | 차환자금, 운영자금 | - |
| 케이카캐피탈 | 2025-09-08 | 2025-09-15 | BBB0 | 100 | 130 | 2.0 | 절대금리 | 4.70% | 5.30% | 5.20% | 160 | 1.60 | 차환자금, 운영자금 | - |
| IM금융지주(신종) [구: DGB금융지주] | 2025-09-08 | 2025-09-15 | AA- | 1,000 | 1,000 | NC5 | 절대금리 | 3.20% | 3.70% | 3.43% | 2,160 | 2.16 | 운영자금 | - |
| 메리츠금융지주(신종) | 2025-09-08 | 2025-09-16 | A+ | 1,000 | 1,300 | NC5 | 절대금리 | 4.00% | 4.50% | 4.19% | 2,020 | 2.02 | 기타 | -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2025-09-09 | 2025-09-17 | A0 | 300 | 670 | 1.5 | 개별민평 | -30 | 30 | -20 | 2,820 | 9.40 | 차환자금 | 3.12%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2025-09-09 | 2025-09-17 | A0 | 700 | 1,310 | 2.0 | 개별민평 | -30 | 30 | -33 | 5,140 | 7.34 | 차환자금 | 3.28%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2025-09-09 | 2025-09-17 | A0 | 500 | 1,020 | 3.0 | 개별민평 | -30 | 30 | -50 | 5,400 | 10.80 | 차환자금, 운영자금 | 3.52% |
| 대한전선 | 2025-09-10 | 2025-09-18 | A0 | 300 | 600 | 2.0 | 등급민평 | -30 | 30 | -35 | 3,110 | 10.37 | 차환자금, 운영자금 | - |
| 대한전선 | 2025-09-10 | 2025-09-18 | A0 | 500 | 950 | 3.0 | 등급민평 | -30 | 30 | -55 | 5,770 | 11.54 | 운영자금 | - |
| 롯데쇼핑 | 2025-09-11 | 2025-09-19 | AA- | 500 | 600 | 2.0 | 개별민평 | -30 | 30 | -9 | 4,800 | 9.60 | 차환자금 | 2.94% |
| 롯데쇼핑 | 2025-09-11 | 2025-09-19 | AA- | 1,000 | 2,400 | 3.0 | 개별민평 | -30 | 30 | -5 | 4,900 | 4.90 | 차환자금 | 3.04% |
| 키움증권 | 2025-09-15 | 2025-09-23 | AA- | 1,000 | | 3.0 | 개별민평 | -30 | 30 | | | | 차환자금 | 2.89% |
| 키움증권 | 2025-09-15 | 2025-09-23 | AA- | 500 | | 5.0 | 개별민평 | -30 | 30 | | | | 차환자금 | 3.18% |
| 에스엘엘중앙 | 2025-09-16 | 2025-09-24 | BBB0 | 300 | | 1.0 | 절대금리 | 6.60% | 7.60% | | | | 차환자금 | 5.01% |
| 롯데칠성음료 | 2025-09-16 | 2025-09-25 | AA0 | 1,000 | | 3.0 | 개별민평 | -30 | 30 | | | | 차환자금 | 2.76% |
| 롯데칠성음료 | 2025-09-16 | 2025-09-25 | AA0 | 500 | | 5.0 | 개별민평 | -30 | 30 | | | | 차환자금 | 2.97% |

주: 날짜는 수요예측일 기준
자료: 다트공시, 현대차증권

〈표 3〉 신용등급 변경 (6/25-9/17)

| 회사명 | 변경일 | 평가기관 | 직전등급 | 변경등급 | 등급변동 | 적용등급 | 구분 | 비고 |
|---|---|---|---|---|---|---|---|---|
| 에코프로 | 2025-06-25 | KR | A- | BBB+ | 하향 | BBB+ | 하향 | - 전방 업황 둔화 및 판가 하락으로 수익성 저하<br>- 잔여 투자 부담을 감안할 시 배당금 수취 등을 통한 별도기준 차입금 감축은 어려울 것 |
| 풀무원식품 | 2025-06-26 | KR | A- | BBB+ | 하향 | BBB+ | 하향 | - 국내 및 해외사업의 동반 부진으로 영업수익성 개선이 미진<br>- 신종자본증권 증가추세로 실질적인 재무부담이 과중 |
| 쌍용씨앤이 | 2025-06-26 | 3사 | A0 | A- | 하향 | A- | 하향 | - 신규 투자, 배당금 지급,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인한 재무부담 지속<br>-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영업실적 저하가 전망 |
| 효성화학 | 2025-06-27 | KIS, NICE | BBB+ | BBB0 | 하향 | BBB0 | 하향 | - 비우호적인 수급환경 에 부진한 이익창출력 지속 전망<br>- 당기순손실 누적에 '24 년 말에는 연결기준 자본잠식을 기록 |
| 현대로템 | 2025-06-27 | KIS, NICE | A0 | A+ | 상향 | A+ | 상향 | - 디펜스솔루션부문의 실적 호조로 외형 및 영업수익성이 제고<br>- 확대된 이익창출력을 기반으로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 |
| SKC | 2025-06-27 | KIS | A+ | A0 | 하향 | A0 | 하향 | - 화학, 2 차전지 사업 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이익창출력 약화<br>- 대규모 투자 지속으로 재무부담이 확대 |
| 고려아연 | 2025-06-27 | NICE | AA+ | AA0 | 하향 | AA0 | 하향 | - 경영권 분쟁에 따른 자사주 매입, 투자 소요 확대로 재무부담 증가<br>- 투자부담 및 주주환원정책 등을 고려할 때 재무부담 완화에 시일이 소요될 전망 |
| 동화기업 | 2025-06-27 | KIS | A- | BBB+ | 하향 | BBB+ | 하향 | - 주택경기 침체 및 2 차전지 업황 저하로 이익창출력 약화<br>- 영업실적 부진 하 투자부담 지속으로 높아진 차입부담 |
| 대한해운(ICR) | 2025-06-30 | NICE | BBB0 | BBB+ | 상향 | BBB+ | 상향 | - 우량 화주와의 장기 운송계약 중심의 사업구조로 사업안정성 양호<br>- 신조선 투자 일단락, 보유 선박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 |
| 롯데케미칼 | 2025-06-30 | 3사 | AA0 | AA- | 하향 | AA- | 하향 | - 기초화학부문의 수익성이 저하에 따른 전사 영업적자가 지속<br>- 자구 계획에도 유의미한 재무안정성 회복 어려울 전망 |
| 롯데렌탈 | 2025-06-30 | KIS | AA- | A+ | 하향 | A+ | 유지 | - 롯데케미칼 등급 하향에 그룹 지원주체 기준 신용도 하향, 이에 동사와의 신용도 격차 축소로 유사시 계열지원가능성 적용이 배제 |
| 롯데오토리스 (롯데렌탈 지급보증) | 2025-06-30 | KIS | AA- | A+ | 하향 | A+ | 유지 | -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롯데렌탈의 등급 하향 |
| 롯데캐피탈 | 2025-06-30 | KIS | AA- | A+ | 하향 | A+ | 유지 | - 롯데케미칼 등급 하향에 그룹 지원주체 기준 신용도 하향, 이에 동사와의 신용도 격차 축소로 유사시 계열지원가능성 적용이 배제 |
| 롯데물산 | 2025-06-30 | KIS | AA- | A+ | 하향 | A+ | 하향 | - 롯데케미칼 등급 하향에 그룹 지원주체 기준 신용도 하향, 이에 동사와의 신용도 격차 축소로 유사시 계열지원가능성 적용이 배제 |
| 롯데지주 | 2025-06-30 | 3사 | AA- | A+ | 하향 | A+ | 하향 | -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등 주요 자회사의 신용도 저하 |
| 대한전선(ICR) | 2025-07-22 | KR | A- | A0 | 상향 | A0 | 유지 | - 글로벌 케이블 수요 확대로 양질의 신규 수주를 확보 중<br>- 우호적인 업황에 힘입어 매출과 이익규모 모두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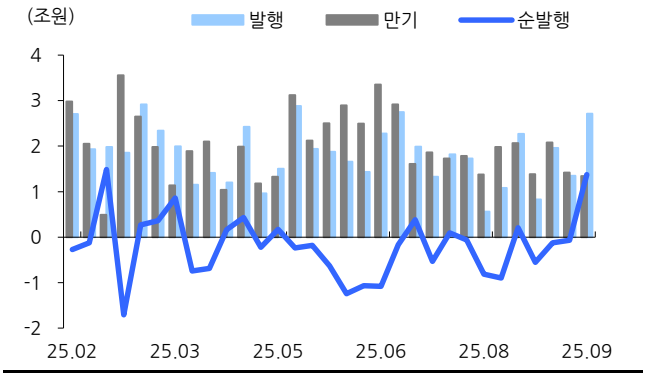
자료: 신평사, 현대차증권

〈표 4〉 신용등급 전망 변경 (6/20-9/17)

| 회사명 | 변경일 | 평가기관 | 직전등급/아웃룩 | 변경등급/아웃룩 | 적용등급 | 구분 | 비고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2025-06-20 | KR, NICE | AA-/S | AA-/P | 전망상향 | AA- | - 방산, 조선산업의 성장세 지속<br>- 채산성 우수한 방산부문 수출 확대로 중단기 우수한 수익성 전망 |
| 에스케이피아이씨글로벌(ICR) | 2025-06-20 | NICE | A-/S | A-/N | 전망하향 | A- | -PO, SM 등 프로필렌계 제품 공급 과잉으로 영업손실<br>- 영업현금 창출력 저하로 재무안전성 저하 |
| 아이비케이저축은행(ICR) | 2025-06-20 | KIS | A0/S | A0/N | 전망하향 | A0 | - 부동산업과 건설업 여신이 건전성 저하의 주 원인으로 작용<br>-2 개년 연속 대규모 적자 기록으로 수익성 악화 |
| 동아에스티 | 2025-06-20 | KR, NICE | A+/S | A+/N | 전망하향 | A+ | - 신약개발 강화에 다른 연구개발비 부담으로 수익성 하락<br>- 차입규모 확대 등에 따른 재무안정성 하락 |
| 호텔신라 | 2025-06-25 | KR | AA-/S | AA-/N | 전망하향 | AA- | - 면세사업 부진으로 영업손실이 지속<br>- 현금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부담이 지속 |
| 에이치디현대케미칼 | 2025-06-25 | KIS | A0/S | A0/N | 전망하향 | A0 | - 석유화학 시황 부진 등으로 저하된 이익창출력<br>- 대규모 설비 신설 이후 확대된 차입부담 지속 |
| 푸본현대생명보험(후) | 2025-06-26 | KR | A0/S | A0/N | 전망하향 | A0 | - 퇴직연금 이자부담, 손실부담계약관련 비용 증가로 적자 지속<br>- 중장기적으로 자본관리 부담이 지속될 전망 |
| 우리자산신탁(ICR) | 2025-06-26 | NICE | A0/S | A0/N | 전망하향 | A0 | - 부동산경기 저하에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저하 지속될 전망 |
| 하나자산신탁(ICR) | 2025-06-27 | KR | A+/S | A+/N | 전망하향 | A+ | - 부동산 경기 침체에 토지 신탁 사업장에 투입한 신탁계정대 및 고정이하자산 증가로 재무건전성 지표가 큰 폭으로 저하 |
| 에스엘엘중앙 | 2025-06-27 | KR | BBB0/S | BBB0/N | 전망하향 | BBB0 | - 채널 편성 축소와 해외 자회사 실적 부진으로 영업적자 지속<br>- 사업 외연 확장을 위한 투자소요로 재무부담은 증가 |
| 콘텐트리중앙 | 2025-06-27 | KR, KIS | BBB0/S | BBB0/N | 전망하향 | BBB0 | -영화 및 콘텐츠 사업 환경 저하에 따른 주력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br>- 콘텐츠부문 투자와 공간부문 자본적지출에 재무부담 확대 |
| 에스케이쉴더스 | 2025-06-30 | KR | A0/S | A0/N | 전망하향 | A- | - 최대주주 변경에 기대되었던 사업기반 강화 효과가 예상보다 미흡<br>- 자체 재무부담이 리파이낸싱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상쇄 |
| 현대해상화재보험(후) | 2025-06-30 | KIS | AA+/S | AA+/N | 전망하향 | AA0 | -1 분기 보험부문 수익성 저하<br>- 지급여력비율 관리부담 상승 |
| 한일현대시멘트 | 2025-07-18 | KIS | A0/S | A0/↑ | 전망상향 | A0 | - 동사를 흡수합병할 예정인 한일시멘트(A+/안정적)의 신용도 감안 |
| 에스케이엔무브 | 2025-07-31 | KIS, KR | AA0/S | AA0/↓ | 전망하향 | AA0 | - 동사를 흡수합병할 예정인 SK 온(A+/안정적)의 신용도 감안 |
| 리뉴어스(ICR) | 2025-08-21 | KR | BBB+/S | BBB+/↓ | 전망하향 | BBB+ | - SK 에코플랜트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각절차 완료시 동사 신용등급에 반영된 계열지원가능성이 약화될 전망 |
| 포스코인터내셔널 | 2025-08-28 | KIS | AA-/S | AA-/P | 전망상향 | AA- | - 사업다각화 수준 제고 및 안정적인 수익으로 실적 변동성 완화<br>- 가스전 증산, LNG 터미널 확장 등을 통해 이익창출력 개선 가능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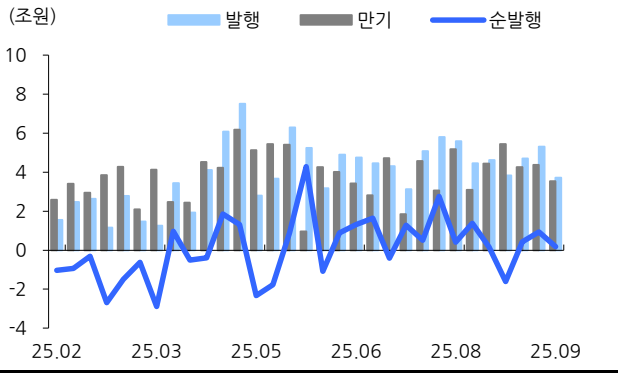
자료: 신평사, 현대차증권

<그림 1> 공사채 발행, 만기, 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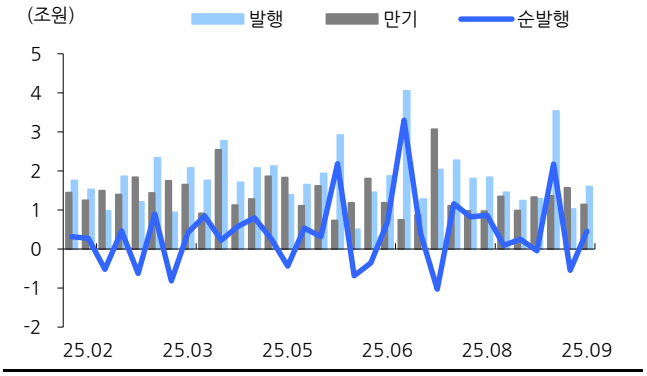

주: 직전 주말까지 주간단위 순발행. 단, 발행 없는 주에는 순발행 집계하지 않음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2> 은행채 발행, 만기, 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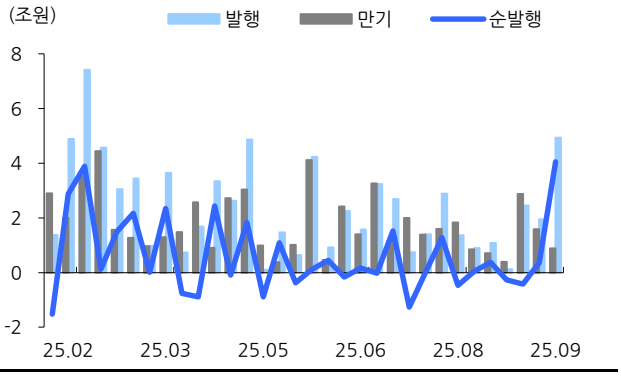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3> 여전채 발행, 만기, 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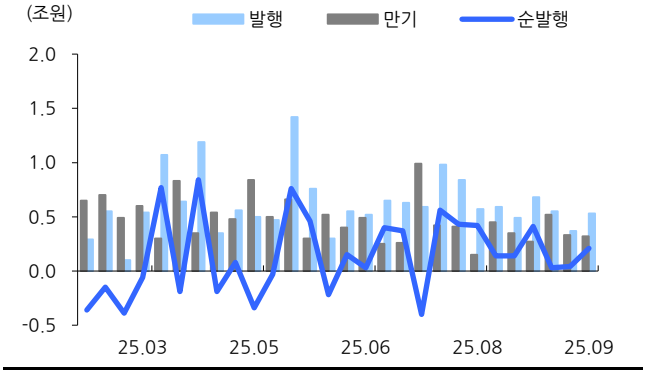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4> 회사채 발행, 만기, 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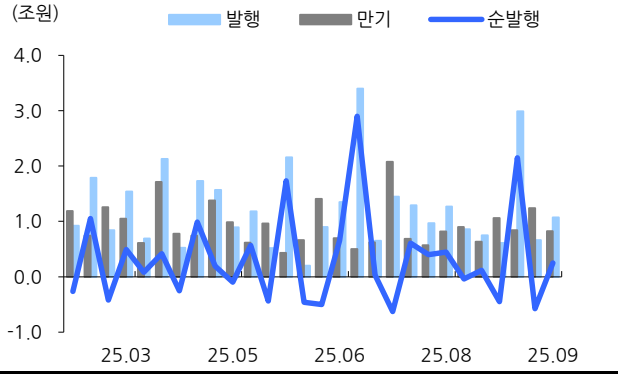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5> 카드 발행, 만기, 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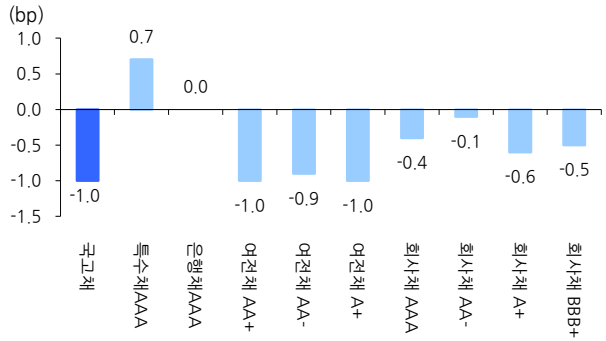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6> 캐피탈 발행, 만기, 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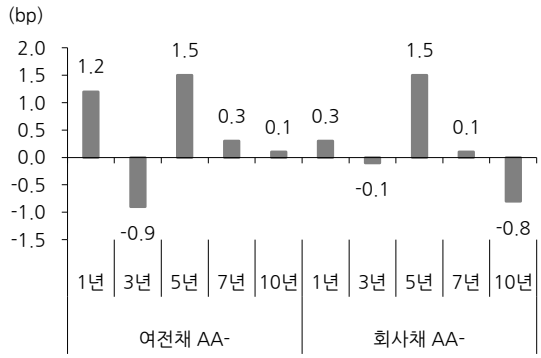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7〉 전주대비스프레드 변동(3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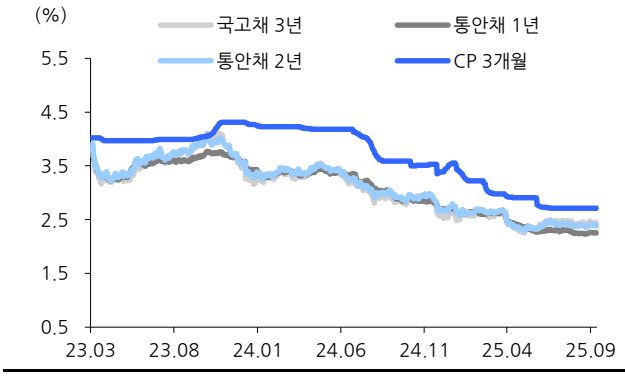

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8〉 전주대비 여전채, 회사채 스프레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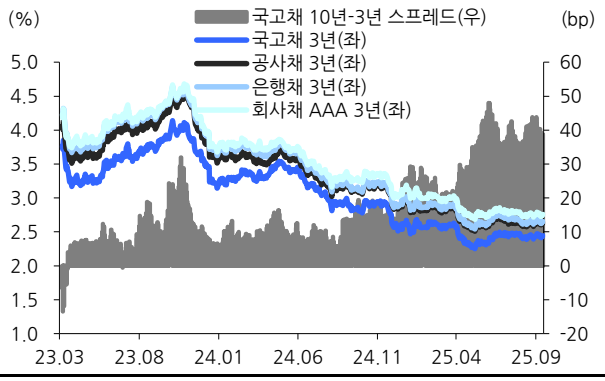

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9〉 국고채 3년, 통안채 1,2년, CP 3개월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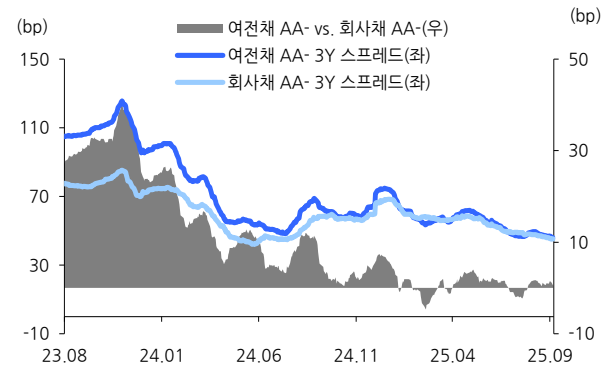

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10〉 국고채, 공사채, 은행채, 회사채 AAA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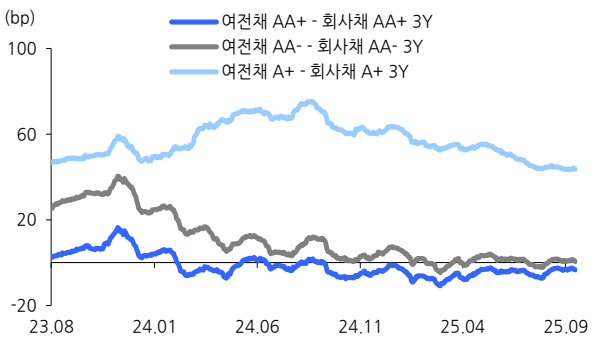

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11〉 여전채 AA-vs. 회사채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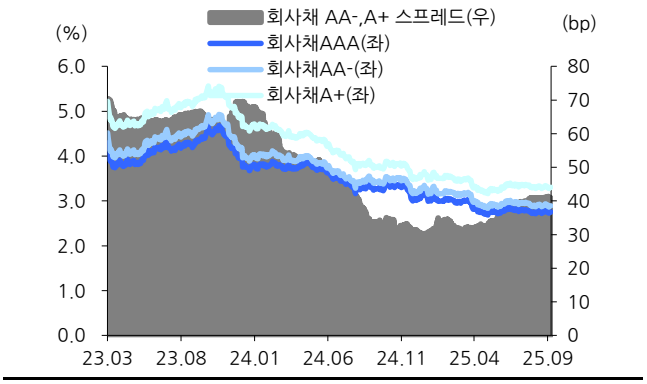

주: 3년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12〉 여전채 vs.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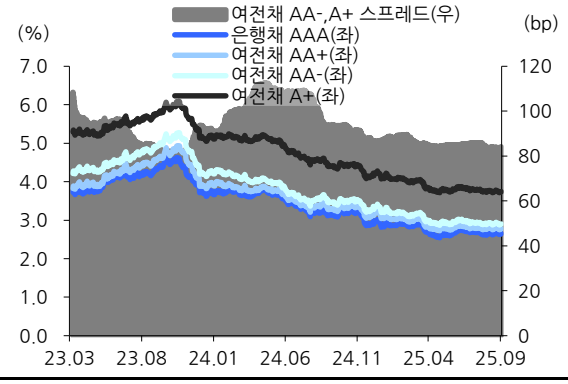

주: 3년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 <그림 13> 회사채 AAA, AA-, A+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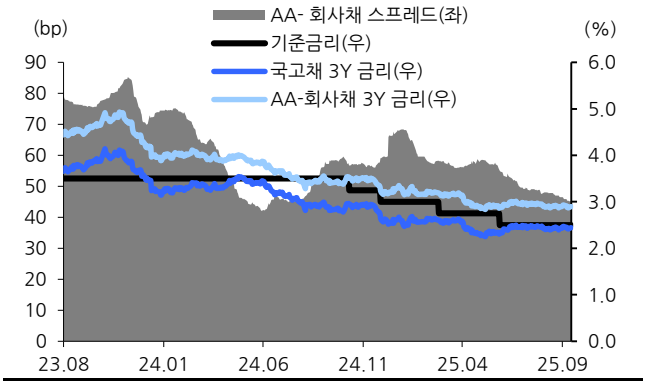

주: 3년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 <그림 14> 은행채 AAA, 여전채 AA+, AA-, A+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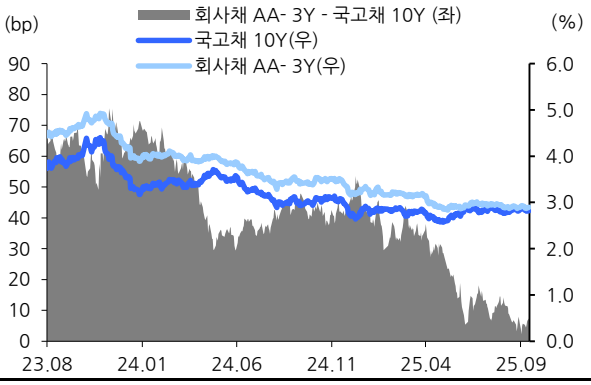

주: 3년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 <그림 15> 회사채 AA-vs 국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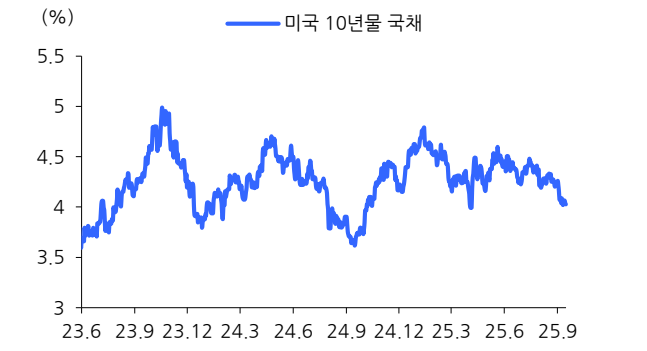

주: 3년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 <그림 16> 회사채 3Y - 국고채 10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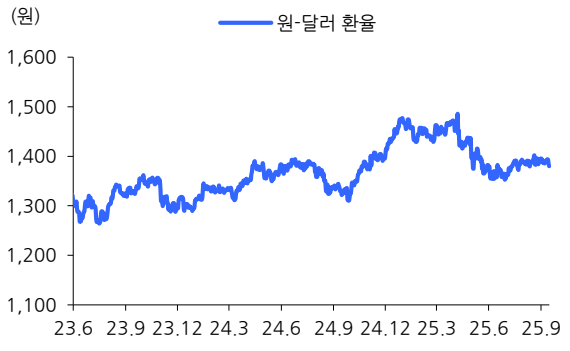

주: 3년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 <그림 17> 미국채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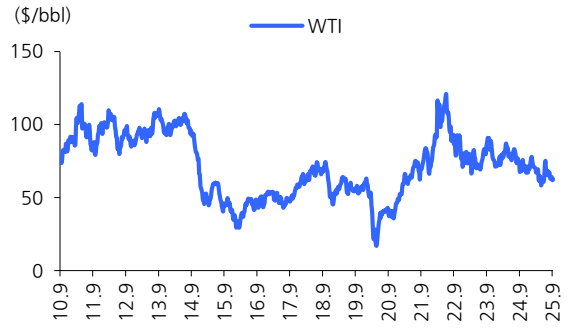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 <그림 18>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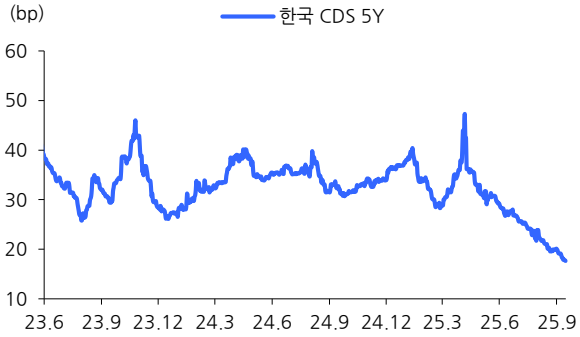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 19〉 WTI 유가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 20〉 일별 CDS 프리미엄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 ▶ Compliance Not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이화진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